



탐라문화제·왕벚꽃축제 ‘도 지정축제’ 서 제외

제주도, 관광 이미지 훼손 축제 ‘무관용 원칙’ 적용 11개 축제 선정... 2차평가 거쳐 인센티브 차등 지원

제주도가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 지정축제 평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요급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가 내년도 도 지정축제에서 제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일 축제육성위원회를 열어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원을 신청한 28개 축제 가운데 상위 11개 축제를 2026년 도 지정축제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축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립춘곤 등 광

역축제 3개와 고마로馬문화축제, 금능원담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우도소리축제, 이호테우축제, 추자도참굴비대축제, 한라산정정고사리축제 등 지역축제 8개다.

도는 오는 5월 15일 도정 1차 사별관에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해 이들 축제의 최종 등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발표평가는 축제조직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5분 발표와 10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발표평가 30점과 내용평

가 70점으로 구성된다. 내용평가는 지역 연계성, 홍보활동, 축제 기획, 행사장 및 시설물, 부대 행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1·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2개, 우수 3개, 유망 6개 축제를 선정하고, 최우수 축제에는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 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인센티브를 등 급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축제 운영 예산은 보조율 100%로 지원된다.

반면 지난해 지정축제였던 탐라문화제(광역 우수)와 전농로왕벚꽃축제(지역 유망)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두 축제는 지난해 행사 기간 일부 먹거리 가격 등을 둘러싸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축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축제에 대한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제의를 결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가에서 즉시 배제하고, 최대 3년간 도 지정축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페널티 기간 동안 축제 예산 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감점 기준도 기존 최대 3점에서 최대 15점으로 확대했다. 바가지요금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사용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 감점된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의 제2시장으로 부상한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 5-9일 여행사와 언론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상품개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공

“대만 관광객 잡아라”... 제주 유치전 나서

지난해 23만3000명 찾아 전년 대비 46.5% 증가 외국인 제2시장 부상... 팸투어·현지 설명회도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의 제2시장으로 부상한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진에어 타이

베이징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만의 주요 여행사, 언론 관계자 등 12명을 제주로 초청,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대만 관광객은 2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6.5% 증가하며 외국인 관광의 제2시장으로 떠올랐다. 올해 1월 방문객도 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5.5% 늘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웰니스 관광지, MICE 유니크베뉴(Unique Venue, 마이스 행사 개최 도시에

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장소), 그린키(Green Key,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는 시설에 수여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 숙소 등 제주가 보유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팸투어 기간 도와 공사는 지난 6일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B2B(기업 대 기업) 트래블마트도 개최했다. 도내 관광사업체 14개 사가 참가해 대만 관광업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상품망 확보와 상품화 전략 등 협업 사업을 논의했다.

또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대만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타이베이 현지에서 제주관광설명회와 대만 교육연맹분부를 대상으로 세일즈 등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로또복권	<제1214회>
당첨번호	10, 15, 19, 27, 30, 33
2 등 보너스숫자	14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3월 9-15일)

“완벽 시공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주)은덕엔지니어링=10일 창립 23주년을 맞는 (주)은덕엔지니어링(대표 강성봉·사진)은 지난 굴착용 파일 가이드 구조와 이를 이용한 파일 설치 공법 특허권 취득, 앵커를 이용한 자립식 말뚝 구조 공법 특허권 취득으로 도내 전문 시공업을 선도하고 있다.

강성봉 대표는 “최고의 기술력을 통한 완벽 시공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702-5865.

“제주와 조화 이루는 건축문화 노력”



▶건축사사무소 강건축=건축 설계와 공사감리 전문 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강건축(대표 강철호·사진)이 오는 14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제주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문화 창출과 창조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강철호 대표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도민에게 감사하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55-3456.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 서비스”



▶남문종합상사=오는 14일 창립 28주년을 맞는 남문종합상사(대표 고상흥·사진)는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창업 목표로 출발한 업체다. 제주라는 위치로 인한 기술적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고상흥 대표는 “항상 연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11-5066.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료시스템 구축”



▶탐동병원=오는 14일 개점 18주년을 맞는 탐동병원(원장 황치문·김성중, 사진 왼쪽부터)은 뇌졸중, 치매, 각종 노인성 질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등 4개 진료과목 164명상에 뇌졸중·치매·통증 클리닉 등 각종 재활 클리닉과 만성 질환자의 간병을 위한 8실의 공동간병 병실도 운영 중이다.

황치문 원장은 “직원 모두가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754-1000.

“제주 정체성 고려한 건축문화 노력”



▶가우건축사 사무소=가우건축사 사무소(대표 양근·사진)가 오는 15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한다. 건축 설계, 지구단위계획, 도시 설계, 이미지 브랜드 컨설팅 등 건축과 환경 디자인 업무를 종합 수행중이다.

양근 대표는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종합 디자인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고려한 건축 문화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742-0202.

제주시정소식

□ 2026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6. 30.(화) 까지
- (비대면) 2026. 4. 30.(목) 까지 / (대면) 2026. 5. 1.(금) ~ 6. 30.(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자
- * 친환경 인증은 사업 기간인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 신청방법 ※ 대면 신청 시 친환경인증서 지참
- (비대면) 온라인(농업e지) 신청, (대면)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신청
-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

구분	유기(유기전환기)	무농약	유기지속(유기전환기)
논	벼 연근·미나리 950천원/ha	750천원/ha	570천원/ha
밭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78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840천원/ha

*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 단계 적용

- 지급한도: 0.1ha ~ 30ha/농가
- 지급횟수: 무농약 3회, 유기 5년(무농약3회+유기2회), 유기지속*(무기한)
- * 유기지속: 무농약 3년과 유기 2년을 지나 적용되는 '유기 지속 직불금'
- 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2026년 삼양동 주말직거래장터 개장

- 운영기간: 2026. 3. 7.(토) ~ 12. 26.(토)
- 운영장소: 삼양해수욕장 입구(삼양이동 1944-1)
- 운영주체: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
- 참여대상: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 누구나
- 판매물품: 주민 직접 생산품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공예품 등)
- 문의: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064-728-4712)

씨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교접, 접순 가능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논봉
- 미니로 ● 제라곤

※ 포드묘목 생즙들이 높고 싶은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